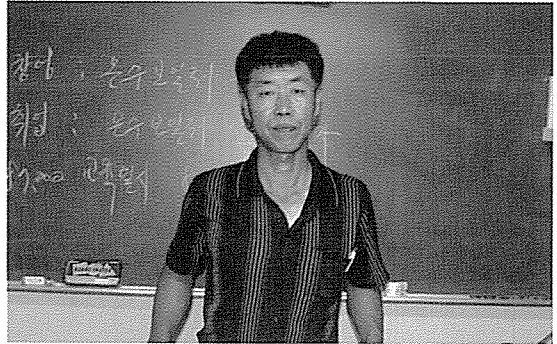


전경석 회원, 기능장 시험 최종 합격



사랑의 보일러 지부 회원 수도설비 전경석(47)씨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제39회 기능장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전경석 기능장은 사랑의 보일러 교실 6기(2002년) 수료생으로 현재까지 자격증도 10여개 (보일러 산업 기사 등)를 보유한 재원이다.

전경석씨가 기능장으로 합격하면서 보일러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인이 탄생됐다.

전국보일러협회의 입장에서도 최초의 기능장이 탄생한것은 큰 경사로 평가받고 있다. 전 기능장은 처음 무허가로 설비업을하다가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껴 사랑의 보일러 교실 문을 두드리게 됐다.

전 기능장은 6개월간의 수료 중에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결실을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해지역과 폭설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이 인정돼 6월21에는 성동구청장 표창도 수여 받았다.

본지 기자가 일만하기도 어려운데 자격증 취득과 기능장에 합격한 노하우에 대해서 묻자 “낮에 일하고 밤에 이론공부를 하려니 힘들지만 꾸준히 노력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다. 철저한 기본기와 바탕위

에 열심히 실습하고 실전에서는 배운 대로 시공하면서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며 “사랑의 보일러 교실 이영수 명장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실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자격증 취득을 이영수 명장에게 돌렸다.

전 기능장은 또 “사랑의 보일러 교실과 인연이 돼 저녁에는 후배 교육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무보수로 지도자일을 하고 있다”며 설비업자의 발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향후 포부에 대해 묻자 전 기능장은 이영수 명장의 뒤를 이어서 명장이 되고 싶은 소원을 밝혀 후배양성과 설비업의 발전에 아무런 댓가없이 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한편 기능장이란 그 분야에 최고로 숙련도를 지닌 기능인을 지칭한다. 정부에서도 기능장 이상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능 대학 및 직업훈련학교에 교수로 임용될 자격이 주어진다.

노동부에서 펼치는 기능장 우대 정책으로 전국에는 300여명의 보일러 기능장이 있고, 100여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랑의 보일러 교실 16기생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 모집한다. (011-495-3014)